

경희인 - 아침을 여는 사람들 ④

새 하루를 맞이하는 설렘 가득한 '설국버스'

서울버스 기사 최봉혁, 육동규 씨

김성수 기자 korkeep@khu.ac.kr

#. 우리학교에는 남들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 아침,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그들의 땀방울은 우리학교의 아침을 이룬다. 우리신문은 '경희의 아침을 여는 사람들'을 만나봤다. 교정을 거닐면서 무심코 지나쳐왔던 그들의 목소리, 그 속에는 각자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지금부터 현장에서 마주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영화 <설국열차>에서 '설국열차'는 하얗게 뒤덮인 설원을 달린다. 정해진 선로를 목적 없이 배회하는 설국열차와는 달리, 우리학교에는 서울·국제캠퍼스(양캠퍼)에서 출발해 서로를 목적으로 달리는 '설국버스'가 있다.

“동안은 무슨 동안이야?” 젊어 보인다는 기자의 인사말에 설국버스 최봉혁(67) 팀장은 손사래를 친다. 여기에 옆에 있던 육동규(66) 기사는 한술 더 뜨며 덧붙인다. “우리가 팀장님이라고 잘 받들어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지.” 육 씨의 넉살 섞인 지적에 최 팀장은 곧바로 대응한다. “원래 가만히 놔두면 빨리 늙는데, 옆에서 간혹거리면 정신 빼짝 차리면서 세월이 비껴가나봐.” 국제캠퍼스 사색의 광장 너머, 다섯 평 남짓한 기사 휴게실은 웃음꽃이 번졌다.

설국버스에 오르는 순간부터 승객들의 하루는 시작, 혹은 끝으로 정의된다. 오전 7시 15분, 첫 번째 설국버스가 서울캠퍼스에서 출발한다. 곧 7시 20분이 되면 국제캠퍼스의 첫 설국버스도 서울을 향해 달린다. 설국버스 안에는 쪽잠에 빠져드는 사람, 즉석김밥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는 사람도 있다. 그 순간 설국버스는 호텔이자 식당으로



최봉혁(오른쪽) 씨와 육동규(왼쪽) 씨는 양 캠퍼스를 이어주는 베테랑 기사다.

바뀐다. 저마다의 아침이 한데 모여, 버스 안에는 새 하루를 맞이하는 설렘으로 가득하다. “적어도 6시 반에는 와야 차량 점검부터 시작해서 운행 준비를 할 수 있지.” 설국버스 기사는 이들의 모든 아침을 책임지기 위해 보다 일찍 아침을 시작한다.

오후 6시가 되면, 양캠퍼에서 동시에 마지막 설국버스가 출발하며 경희의 하루는 마무리된다. 이 시각의 설국버스는 저녁노을과 함께 승객들의 노곤함으로 물든다. 하루는 학생들이 시험을 끝내고 돌아오는 날이었다. 최 팀장이 백미러로 승객들이 다 내린 것을 확인한 뒤, 다음날의 통학 노선을 운행하기 위해 부평으로 가는 길이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는 중저음의 엔진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러던 찰나에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저씨, 여기 어디예요?” 시험기간에 쌓인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어버린 학생이었다. “분명히 다 내린 줄 알았는데 그 학생

이 폭 쓰러져서 잔 거야. 그때는 서로 미안한 거지.” 최 팀장은 그날의 경험 때문에 운행이 끝나고 좌석이 다 비었는지 일일이 확인해본다.

육 씨는 1991년부터 버스 핸들을 잡고 있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맨 처음 자신이 운송업체에 뛰어들 계기를 정확히 기억한다. “버스 운전 하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친구의 권유로 시작했지.” 시작한 노선버스였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첫차 시간을 맞춰야 했다. 자동차가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 밥 먹을 시간조차 없어서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힘들었지만, 육 씨는 어느새 양캠퍼를 이어주는 베테랑 기사가 됐다. 그가 지금까지 일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딱 감고 생각해보면 내일 갈 데가 있어서 기분이 좋지.” 이제 버스 핸

들을 잡는 일은 육 씨에게 일상 이상의 의미다. “지금 일에 100점 만점에 120점으로 만족해. 후회는 없어.”

최 팀장은 운송업체에 몸담은 지 올해로 10년차에 접어들었다. 여태껏 직업으로 삼아온 일만 해도 열댓 가지쯤 된다. 50대에 접어들어서 선택한 이 일이 평생 직업으로 삼아온 것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셈이다.

'감사합니다'란 인사 설국버스 기사들의 가장 특별한 순간

그가 사회에 발을 내딛던 당시에는 군대식 수직 문화가 만연했다. 조직에 맨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업무를 처리하기보다 눈치를 보느라 더 바빴다. 그래서 다른 일들과는 달리, 운송업은 최 팀장에게 더욱 특별했다. 그가 버스 핸들을 잡는 순간부터는 온전히 그만의 시간이 된다. “나만의 공간에서 내 하기 나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복

을 줄 수 있는 일이지.” 그는 노동량에 비해 월급은 많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운전석에 앉을 때마다 느껴지는 설렘을 표현했다. “돈만 보면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이게 제일 내 직업이야.”

특히나 이 일은 최 팀장에게 더욱 소중한다. 2007년 미국 발 금융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에게 직업 공백기가 생겼다. 당장 며칠 동안은 좋았다. 세파에 쫓겨 만나지 못했던 친구 얼굴도 보고, 혼자서 바닷가로 여행도 다녀왔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세월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였다.

이 순간은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했다. 집에 있으면서 부인이 차려주는 밥 세 끼를 꼬박 받아먹었다. 미안한 감정이 쌓여만 갔다. 하루 종일 부인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보람이라면, 첫째가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이지 않을까?” 최 팀장이 이 일에 더 애정을 품고 있는 이유다.

이들의 출발선은 달랐지만 일에 임하는 자세는 동일했다. 육 씨는 운전 경력이 30년에 가깝지만, 여전히 ‘달인’이라는 호칭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운전이 숙달될수록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해. 엇그저께 먼하든 기분으로 항상 긴장하면서 해야지.” 최 팀장은 마음가짐에 더불어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을 보탰다. “건강에 이상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 버스 안에는 몸이 여럿이다 보니 자칫하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

운행이 끝나고 설국버스에서 내릴 때, 우리는 습관처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통해 그들에게 인사를 건넨다. “그런 인사를 들을 때마다 그날의 피로가 풀리고, 나도 덩달아 힘이 나지.” 아주 짧은 시간, 운전석을 잠깐 스쳐간 표현은 설국버스 기사들의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다.

독립 투자전문그룹, 미래에셋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9-03478호 (2019.08.28 ~ 2019.10.04)

한번 다운로드, 평생 글로벌 투자파트너- 미래에셋대우

좋은 파트너 선택이 평생투자를 좌우합니다.
앞선 파트너와 함께 하세요

-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 글로벌 리서치센터
-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총 33개국 거래 가능 (온라인/오프라인 포함)
- 국가간 환전 없이 당일 사고파는 통합증거금 서비스

*일부 통화한정 / 실시간 결제환율 적용

2019 미래에셋대우 대학생 디지털 금융 페스티벌

- 프로그램 : 모의투자대회 / 빅데이터 분석대회 / 아이디어 경진대회
- 접수기간 : 2019.9.9 ~ 10.4 / 대회기간 : 2019.9.23 ~ 11.8
- 참가대상 : 대학(원)생, 휴학생
- 총 상금 2,200만원, 해외탐방의 기회까지!

※ 자세한 사항은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참조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 1588-6800] ■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거래시 수수료는 신규 영업점 개설 계좌 온라인 0.14%, 오프라인 0.49% 신규 다이렉트 계좌 온라인 0.014%, 오프라인 0.49%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해외주식거래시 수수료는 온라인 0.25~0.45%, 오프라인 0.50~1.00%(국가별 거래수수료 상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해외주식 등 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대우